

진, 빌보드 '핫100' 51위...BTS '프루프' 빌보드200 21주 연속 진입

제이홉·슈가·뷔·정국 솔로곡·드라마 OST·웹툰 OST '핫100' 진입 BTS, 10년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 가장 많은 아티스트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0·김석진)의 첫 공식 솔로곡 '디 아스트로넛(The Astronaut)'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 진입했다.

8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진이 지난달 28일 발매한 '디 아스트로넛'은 12일자 '핫100' 차트에서 51위로 데뷔했다. 진이 솔로로 '핫1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방탄소년단의 다른 멤버들이 제이홉, 슈가, 뷔, 정국이 솔로곡 또는 드라마 OST·웹툰 OST로 '핫100'에 진입했다.

2017년 'DNA'로 '핫100' 85위에 진입(이 곡 최고 순위 67위)하며 처음 해당 차트에 데뷔했던 방탄소년단은 자체곡, 협업곡 등을 포함 최근 베니 블랑코의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까지 총 35곡을 '핫100'에 진입시켰다. 진의 '디 아스트로넛'이 36번째 '핫100' 진입곡이다.

특히 방탄소년단은 최근 10년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위에 가장 많은 곡을 올린 아티스트다. 이 기간에 6곡을 '핫 100' 정상에 올렸다. '다이너마이트

(Dynamite)'(3회)로 한국 가수 최초 '핫 100'(2020년 9월 5일 자) 1위에 오른 뒤 같은 해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버전(1회)과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1회)도 정상에 올려놓았다.

작년엔 '버터(Butter)'(10회)와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1회), 폴드플레이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1회)까지 방탄소년단은 여섯 곡으로 총 17회 '핫 100' 정상을 찍었다.

'핫100' 역사를 통틀어 진입과 함께 1위로 지정한 '핫샷' 데뷔곡 보유 순위에선 2위다. 피처링 곡인 '새비지 러브' 리믹스를 제외한 나머지 곡 모두가 '핫100'에 1위로 데뷔한 것이다.

또 방탄소년단은 10곡 이상을 빌보드 '핫 100' 톱10에 올린 첫 한국 아티스트다. '온' 4위, '작은 것들을 위한 시' 8위, '페이크 러브' 10위, 보컬라인이 참여한 베니 블랑코의 '배드 디시전스(Bad Decisions)' 10위 등의 '핫 100'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진의 '디 아스트로넛'은 빌보드

내 세부 차트에서도 호성적을 거뒀다. '빌보드 글로벌 200'에선 10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선 6위에 올랐다.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와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에선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캐나다 핫 100'에서는 58위에 올랐다.

방탄소년단 매행인 진은 이르면 올해 안에 입대한다. '디 아스트로넛'은 입대 전에 발표하는 마지막 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은 SBS TV '런닝맨', 웹예능 '할명수'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팬들과 소통의 선물을 주고 있다. 최근엔 '진라면' 모델로 발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탄소년단은 진 외에도 그룹과 개인 활동으로 빌보드 각종 차트에서 장기간 1위이다.

지난 6월 발매한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는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66위로 21주 연속 차트인했다. '월드 앨범' 1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31위, '톱 앨범 세일즈' 37위에 자리했다. 또한, 지난 2017



년 9월에 나온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는 '월드 앨범' 15위, '톱 앨범 세일즈' 92위로 재진입했다.

팀의 다른 곡도 여전히 인기다.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166위, '다이너마이트(Dynamite)'가 184위였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가 110위, '다이너마이트

(Dynamite)'가 126위, '버터(Butter)'가 186위에 랭크됐다.

한편, 정국과 미국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찰리 푸스의 협업곡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차트에서 각각 91위, 75위에 올랐다. '어덜트 팝 에어플레이' 34위, '캐나다 핫 100' 72위를 차지했다.

'싱글맘' 안소영 "이혼남이라더니 유부남...바로 돌아서"

KBS 2TV 예능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배우 안소영이 미혼모가 된 사연을 털어냈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예능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서는 새 식구 안문숙·안소영과 함께하는 포항에서의 두 번째 날이 펼쳐졌다. 이날 자매(박원숙·혜은이·안문숙·안소영)들은 막내 안문숙의 주도로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의 촬영지 구룡포를 찾았다. 이곳에서 안소영은 "동백꽃 필 무렵을 보고 내 이야기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팠다"며 "아이한테 상처주지 않고 엄마 혼자서 키우려는 마음이 너무 공감돼서 이 드라마를 몇 번씩 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드라마 엔딩에서는 돌이 살게 됐잖아. 왜 나한테는 그런 강하늘 같은 순수한 남자가 안 다가오는 거야"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박원숙은 "(너가) 공효진이 아니잖아"라며 팩트폭격을 날렸다.

이어 박원숙은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묻는다. 안소영은 "남자애들

은 크면서 아빠를 굉장히 그리워하더라. 아들이 나를 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 혼자 아이를 키우다보니 '동백이'(공효진 분)처럼 아이의 꿈을 밀어주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나 혼자 할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며 미혼모의 아픔을 털어냈다.

또 "싱글맘으로 아이를 낳은 게 가끔 내 잘못 같다. 보통 가족처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어야 했는데"라며 후회하기도.

안소영은 미국에서 아들을 홀로 키울 당시, 학교 참관 수업 참여를 위해 처음이자 마지막 으로 아이 아빠에게 전화를 건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이가 아빠의 존재를 낯설어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한국에 왔을 때 아들은 안소영에 "아빠를 만날 수 있나"고 물었다고 했다.

이에 안소영은 "그건 나중에. 엄마가 아빠를 지금 안 보고 싶어. 18살 되면 그때 아빠 얘기 하자"고 말했다고. "그때가 애 아빠가 죽고 없



아빠 찾는 아들을 보며 너무 마음 아팠던 소영

있을 때다. 애한테 아빠가 죽었다는 말을 할 수 없지 않나. 나도 미국에서 아는 언니를 통해 들었는데 아이한테 거짓말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 안타까움을 불러 일으켰다. 아이 아빠와는 스키장에서 처음 만났다고 고백했다. "제가 평소에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애 아빠도 스키장에서 만났다. 당시 저한테 이혼남이라고 했었다"며 "당시 서른 후반이어서 주변의 결혼 압박 때문에 '좋아해 볼까?' 했던 상황이었었는데 나중에 이혼남이 아니라 유부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 속였다는 생각에 바로 돌아섰다. 그래서 나 혼자 아이를 낳았다. 남의 가정을 깨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고 해 뜻밖의 사연에 충격을 안겼다.

갯세븐 박진영,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 도전

쌍둥이 연기, "1인2역, 두려움 있었지만 점점 확산"

그룹 '갯세븐' 박진영이 영화 '크리스마스 캐럴'로 1인2역에 도전한다.

박진영은 9일 서울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캐럴 제작보고회에서 "시나리오를 받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야생적인 모습이 있다 보니 어떻게 나올지 두려움과 궁금증이 있었다"며 "감독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 영화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다. 고생하더라도 '해보자'고 다짐했고 선배, 동료 등을 만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생겼다"고 털어냈다.

"변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두 인물을 어떻게 연기할지 생각하다 보니 부담도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도 없었다.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잡아 나갔다. 감독님과 제작진이 배려해 줘서 동생 신을 다 찢고, 이후 형 신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이 영화는 쌍둥이 동생 '월우'(박진영)가 죽은 후 형 '일우'(박진영)가 스스로 소년원에 들어가 소년원 패거리에게 복수하는 이야기다. 주원규 작가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영화 '야수'(2006), 드라마 '구해줘'(2017) 김성수 감독이 극본·연출을 맡는다. 김영민과 김동휘, 송건희, 허동원 등도 힘을 신는다. 다음달 7일 개봉.

설현·임시완, 인생 파업 선언...'아무것도' 오는 21일 방송



메인 포스터 2종 공개

지니TV 드라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가 메인 포스터 2종을 9일 공개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는 인생 파업을 선언한 자발적 배수 여름(김설현 분)과 삶이 물음표인 도서관 사서 대범(임시완 분)의 씬샷 찾기 프로젝트다.

공개된 포스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휴식을 취하는 여름과 대범의 모습이 담겼다. 인생 파업을 하고 찾아가던 '안국마을'에서 마음껏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며 버킷리스트를 실천 중인 여름의 모습이 대리 만족을 선사한다. 또 책을 보다가 잠든 여름과 그 옆 미소 짓는 대범의 모습은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든다. 삶이 물음표인 대범 앞에 나타난 여름의 존재는 청량한 바람이 될 예정이다.

오는 21일 오후 9시20분 방송.

케빈오, 15일 첫 정규 발매...아내 공효진 작사곡 선공개

가수 케빈오가 데뷔 5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9일 소속사 티캐스크이엔티에 따르면, 케빈오는 오는 15일 첫 정규앨범 '피시스 오브(Pieces of)'를 공개한다.

'노스사이드, 1995', '더 문 앤드 스타즈', '피시스 오브 유' 등 8개 트랙이 실린다. 특히 케빈오의 아내 공효진이 작사에 참여해 화제를 모은 '너도 나도 잠든 새벽(Dawn)'을 12일 오후 6시 선공개한다.

티캐스크이엔티는 "케빈오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씩 모아 두었던 생각의 스케치들을 자신만의 스토리로 채워 완성도 높은 앨범을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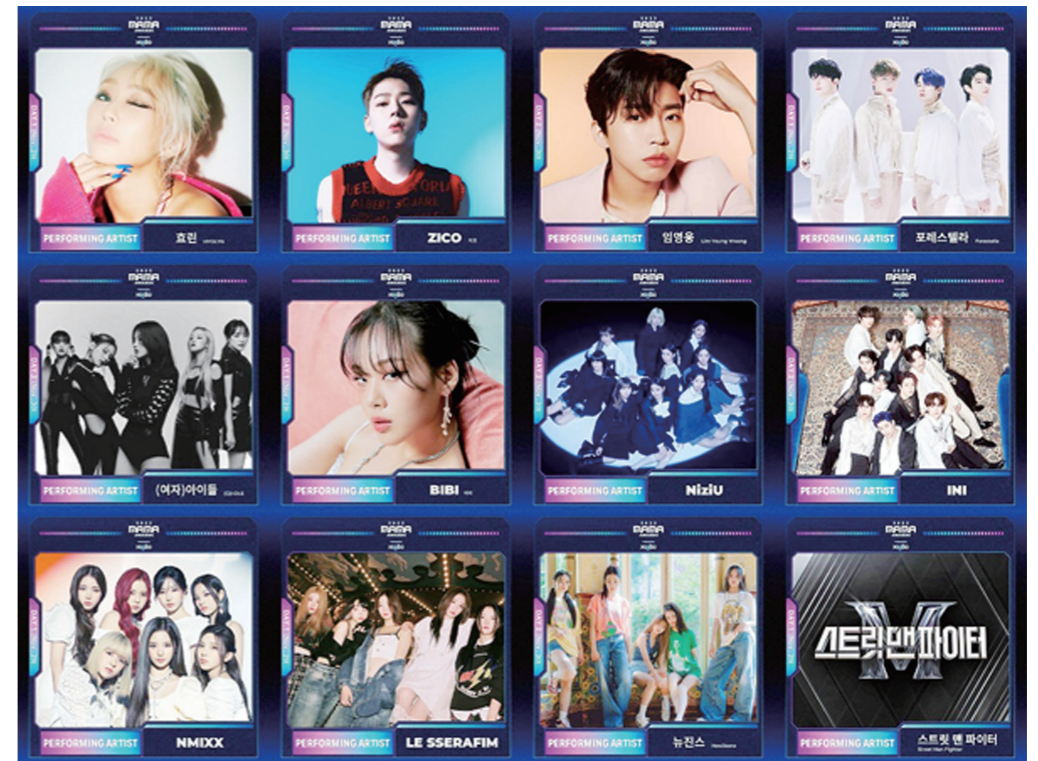
보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미국 명문 다트머스대에서 경제학과 연극학을 공부한 케빈오 는 2015년 엠넷 오디션 '슈퍼스타K' 시즌7에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작·편곡 능력도 갖춰 2017년 데뷔 앨범 '스타더스트'를 비롯해 '베이비 블루' '비 마이 라이프' 등 드라마 OST에 참여하며 실력을 인정 받았다. 2019년엔 JTBC 밴드 오디션 '슈퍼밴드'에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밴드 '에프터문'으로 활동했다.

이와 함께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 '스토브 리그', '경우의 수', '설강화' 등의 드라마 OST도 불렀다. 최근에는 드라마 '금수저' OST '유



어 더 온리 원(You're the only one)'에 참여했다. 지난달 11일 미국 뉴욕에서 공효진과 결혼했다.



임영웅→스맨과 총출동...'마마 어워즈'

2차 라인업 명단 공개

'2022 마마 어워즈(2022 MAMA AWARDS)'가 한달도 2차 라인업 명단을 공개했다.

9일 운영사인 CJ ENM에 따르면, 그룹 '씨스타(SISTAR)' 출신 효린, 그룹 '블락비(Block B)' 출신 래퍼 지코, 가수 임영웅, 포레 스타라(Forestella), (여자)아이들, 비비, 니쥬(NiziU), INI, 엔믹스(NMIXX), 르세라핌(LE SSERAFIM), 뉴진스(NewJeans), '스트릿 맨 파이터(이하 '스맨파)'가 함께 한다.

시상식 첫째 날인 29일에는 효린, 포레 스타라, 비비, 엔믹스, 르세라핌, 스맨과 크루들의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시상식 둘째 날인 0일에는 지코, 임영웅, (여자)아이들, 니쥬, INI, 뉴진스가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2022 마마 어워즈'는 일본 '교세라 돔 오사카(Kyocera Dome Osaka)'에서 29-30일 열린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